일산신도시 재건축 속도… 주거시설 개선·미래 경쟁력 강화

고양시, 백송마을 특별정비구역 추진
기존 2732 → 3686 가구로 확대
후곡마을, 강촌·백마마을 심의 준비


일산신도시 부감.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도지구인 백송마을의 연내 첫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후곡·강촌마을 등 후속 사업지의 정비절차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일산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는 곳은 백송마을이다.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은 백송마을은 관련 조건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일산신도시 최초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백송마을은 재건축을 통해 기존 2732가구에서 3686가구로 확대되며, 최고 49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다른 선도지구와 후속지구에서도 정비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선도지구인 후곡마을과 후속지구인 강촌·백마마을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선도지구 강촌마을은 오는 12월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이후 재건축 대상지 48곳 가운데 후곡·강촌·백송·정발마을 등 4곳을 선도지구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1월부터는 후속지구로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주민 제안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보완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검토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특별정비계획 초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후속지구 3개 구역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정비사업의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에도 나섰다. 고양시는 지난해 7월부터 여러 분야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기본계획 재검토에도 착수했다. 시는 지난 6일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 재정비' 용역을 시작했다.

시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용역비를 확보했으며, 2027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재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규모 재건축과 별개로 원도심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부터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상담소를 마련해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사업 유형별 추진 요건과 절차를 안내했다.

시는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주민 수요를 반영해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향후 주교동과 성사동 등 다른 원도심 지역으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낡은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정비계획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metroseoul.co.kr

포항시, 가을 릴레이 축제 계속된다

'전통시장 우수상품 박람회'부터
'행복 어울림 마당' '동행축제'까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 촉진


포항지역 전통시장 축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먹거리와 문화공연을 즐기고 있다.

포항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을 위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먹거리 장터와 문화행사 등 가을철 릴레이 축제를 이어간다.

10일부터 12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는 '포항시 전통시장 우수상품 박람회'가 열린다. 지역 대표 시장의 특산품과 먹거리를 선보이고 특산물 할인 판매, 김장용품 대전, 우수 상품 100원 경매, 공연 등을 진행한다.

지난 6일에는 유망골목상권인 젊음의 거리에서 '쌍사페스티벌'이 열렸으며, 구룡포에서는 14일 '행복어울림 마당'과 15일 '동행축제'가 이어진다.

앞서 10월 연일전통시장에서는 2일부터 24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지역 특산물인 부추를 활용한 '부추&바베큐 구이장터'가 운영됐다. 대해불빛시장에서도 매주 금·토요일 '만발야시장'을 열어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포항시는 시장별 특색을 살린 행사와 공연·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권역별 축제를 통해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파주시, 문산권 보건·복지 복합시설 준공

문산보건센터, 내달 14일부터
해누림노인복지관, 1월부터 운영

파주시 문산권과 북부권 주민들에게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문산보건센터와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이 준공됐다. 문산보건센터는 오는 12월 14일,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은 2027년 1월 1일 각각 문을 열 예정이다.

파주시는 문산읍 개포래로 34 일원에 조성한 문산보건센터 및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 건립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문산보건센터의 협소한 시설을 대체하고, 지역 내 보건·복지 기능을 한곳에 모으기 위해 추진됐다.

신축 시설은 부지면적 9299㎡, 연면적 4158㎡ 규모의 지상 3층 복합 공공건축물이다. 2024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 10월 준공했다.

건물 내부에는 진료실과 검진실, 건강상담실, 운동교실 등 보건시설과 경로식당, 강당, 강의실 등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섰다. 보건·복지 기능을 한 건물에 배치해 주민들이 여러 시설을 이동하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파주시는 지난 10월부터 개소·개관 준비와 사무실 임시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 정식 운영에 앞서 시설별 이용 동선과 부대시설, 운영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지난 5일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손 시장은 "시설 이용 과정에서 불편할 수 있는 요소와 부대시설 활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봤다"며 "시민들이 실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준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산보건센터는 오는 12월 14일 사무실 이전과 함께 개소하며, 문산해누림노인복지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파주시는 개소 전까지 시설 점검과 운영 준비를 마무리하고,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이용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토마토 갈색 주름 바이러스' 방역 당부

부산시 농업기술센터, 수칙 안내

부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시설재배 농가에서 '토마토 갈색 주름 과실 바이러스(ToBRFV)'가 발생, 지난 5일 토마토 수경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농가에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바이러스는 토마토·파프리카·고추 등 가지과 작물에 감염되며 잎의 모자이크 얼룩과 주름, 과실의 불균일한 착색과 갈색 반점 등을 일으킨다. 감염이 심하면 과실이 썩고 생산량이 30~70% 줄어들 수 있다.

현재 방제 약제가 없으며 작업자의 손과 장갑, 전지가위는 물론 신발이나 작업복이 스치는 접촉으로도 퍼질 수 있다. 센터는 외부인의 온실 출입과 발생 의심 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전용 작업복·작업화를 착용하도록 안내했다.

농가는 전지 가위와 상자, 유인선 등 작업 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건전한 종자와 모종을 사용해야 한다. 확진되면 국가 표준 지침에 따라 감염주와 잔재물을 격리·폐기해야 한다.

/부산=김재남 기자 metrobusan99@

경북도, 새마을운동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해외 16개국 90개 시범마을 조성
새마을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도

경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 새마을운동 유공 정부포상'에서 새마을운동 53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해외 시범마을 조성과 인재양성 등 새마을운동 세계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북도는 새마을재단과 함께 해외 16개국 90개 마을에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35개국 500여 명이 참석한 '새마을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스리랑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국가 변혁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베트남 호찌민대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대에서 해외 새마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영남대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을 지원해 49개국 글로벌리더 306명을 배출했다. '새마을 지도자 대학'을 통해 지역 지도자 2694명도 양성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완료

김해시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마치고 지난 7일 주민편익시설 야외광장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현장에서는 영향권 지역 주민 축제인 '제3회 부곡주민 어울림축제'도 함께 열렸다.

시는 총사업비 1193억원을 들여 하루 처리 용량을 150톤에서 300톤으로 늘렸다. 기존 150톤 규모 소각로 1호기를 대보수하고 같은 용량의 2호기를 신설해 김해 생활폐기물 250톤과 창원 생활폐기물 50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밀양시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경남 밀양시는 오는 14~15일, 21~22일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서 '2026 밀양 선샤인 농산물대전·밀양얼음골사과대축제'를 연다. 지역 농업인의 판로를 넓히고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총 4일간 직거래 장터와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첫 주인 14~15일에는 밀양 선샤인 농산물대전과 밀양얼음골사과대축제가 함께 열린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얼음골사과와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금액에 따라 사은품과 상품권을 지급한다.

둘째 주인 21~22일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농산물 경매와 룰렛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주 농산물 구매 고객에게는 구매 금액의 10%를 밀양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밀양(경남)=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경북문화관광공사

드라마·소설 속 명소 8곳 소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드라마와 영화, 소설 속에 등장하는 경북의 명소 8곳을 소개하는 '경북여행 MVTI' 11월호 'Somewhere Between Pages and Scenes'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11월호는 스크린과 문학 작품 속 배경이 된 경북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자가 작품의 장면과 이야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관아 장면이 촬영된 고령 김면장군 유적지와 영화 '기적'의 모티브가 된 봉화 양원역이 대표적이다.

/경북=김진곤 기자

국립창원대

'라 트라비아타' 무료 공연

국립창원대학교 글로컬사업단과 라 스텔라 오페라단이 오는 26~27일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총 3회 공연한다. 입장료는 전석 무료다.

공연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오는 27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에 열린다. 사전 예약자에게 좌석을 우선 배치하며 예약은 카카오톡에서 '라 트라비아타_라 스텔라 오페라단' 채널을 검색해 진행하면 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